

## 한일국교정상화 60 주년, 도쿄에서 맞는 한국의 설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에서는 설날을 앞둔 1월 25일(토) 어린이 한복 시착 및 세배 체험, 떡국 시식, 차례상 재현, 전통놀이 체험, 매듭공예, 한글 신년 휘호 체험 등 한국 설을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500 명이 넘는 주재국민들이 한국의 설을 즐겼다.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60 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으며, 60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60 번째로 입장한 참가자에게 한국문화상품이 가득 담긴 복꾸러미를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설날 차례상 재현 △떡국 시식 △설날 관련 도서 전시 △사전신청제로 진행한 강좌형 집중체험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유 행사 등 참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선보였다.

특히 미래 교류의 중심이 될 어린이들이 한국을 재미있게 느껴 볼 수 있도록 △어린이 한복 시착 및 세배와 덕담 △한국어로 새해 인사하고 가차가차(뽐기기계) 체험 등의 행사도 마련하여 온가족이 즐기는 설날 행사의 의미를 되살렸다.

한옥 사랑방에는 차례상을 재현하여 차례상에 담긴 뜻과 한국인이 설날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드라마에서 보던 차례상을 실제로 보게 되니 너무 재미있고 마치 드라마 속에 들어온 것 같다.'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하늘정원에서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화제가 된 비석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공기놀이 등 한국의 민속놀이를 즐기며 흥겨운 설날 분위기를 자아냈다.

공형식 원장은 "설날 행사는 가족동반이 많아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한다. 어린이들도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참가자들이 열띤 모습에 설 명절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 및 생활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행사 전경

【문의】 주일한국문화원 유귀연(행사담당) / 조은경(홍보담당)  
전화 (+81) 3-3357-5970 메일 [pr@koreanculture.jp](mailto:pr@koreanculture.jp)